

# 유동성 위기 지역 중기 “정책 자금 확대해 달라”

### 한은 광주전남본부, 중기 지원자금 연 1조779억 그쳐 중기 대출금액 4조2300억원으로 실수요 간 괴리 상당

유동성 위기 속에서 은행권이 유일한 자금 창구인 지역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광주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은행권 관계자 20여 명과 ‘2022년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한은은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C2 자금) 운용 현황을 설명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효과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영세하거나 중·저신용인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지역 중소기업 대출액의 50% 이내를 금융기관에 연 1.75%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이용

자가 이자율을 1~2%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금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의 지원자금 규모는 연 1조 779억원으로,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전남 서남부 922억원 제외)으로 지원하고 있다.

광주·전남에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연 1조 779억원으로 한정돼 있지만, 대출 수요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한은 자금 지원을 받은 광주·전남 업체 수는 8300개(2020년)→1만1600개(2021년)→1만1700개(2022년) 등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금융기관 대출 건수는 1만 2100건(2020년)→1만7700건(2021년)→1만 8000건(2022년) 등으로 모든 수요를 맞추지 못한 다.

특히 지역 기업들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2조

9500억원(2020년)→3조9100억원(2021년)→4조2300억원(2022년)으로 급증하면서 정책자금과 실수요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3년 동안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쓰인 분야별로 보면 자동차부품과 철강 제조업 등 광주·전남 지역전략산업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대표적인 ‘경기부진업종’ ‘경기민감업종’ 지원자금도 증가했다.

지역전략산업 부문 지원액은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478억원에서 2021년 1570억원, 올해 1885억원 등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지원자금에 대한 비중도 13.7%→14.6%→17.5%로 증가했다.

6500억원 규모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자금이 지난 2020년 신설되면서 경기부진업종·경기민감업종 영위 기업에 대한 지원액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 업종 지원액은 2020년 6979억원에서 올해 7325억원으로, 2년 새 5%(346억원) 늘었다. 단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라 지난해(7385억원)보다 소폭(0.8%) 감소했다.

신설된 코로나19 지원 부문에서는 서비스업 자영업자라면 업체당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의 최대 50~75%에 대해 이자율을 감면받을 수 있어 자금 수요가 많았다.

반면 창업·벤처·혁신기업 지원액은 2020년 1098억원(10.1%)에서 2021년 880억원(8.2%), 올해 771억원(7.2%) 등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도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과 금융지원 관련 개선사항 등을 건의하고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최재호 한은 광주전남본부장은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 중 시행 가능한 것은 바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도 어려운 중소기업 발굴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72.40(-0.62)
↓ 코스닥	715.16(-0.06)
금리(국고채 3년)	3.623(-)
↓ 환율(USD)	1306.00(-1.20)

### 광주문화산업진흥원장 공모 내년 1월 2일~4일 접수

광주문화산업진흥원장은 신입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진흥원 탁용석 현 원장의 임기가 내년 2월 10일 끝나면서 9대 원장 공모를 추진한다. 지원 기간은 내년 1월 2~4일이다.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후보 중 최종 1명을 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 정보 기술, 문화콘텐츠 등 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2002년 설립됐다. 직원은 130여 명이며, 예산은 700여억 원 규모다. /백희준 기자 bhj@

## 납품단가조정 협의제도 ‘유명무실’

### 공정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원자재값 등 공급원가가 바뀌면 하도급 기업이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2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6.8%에 그쳤다.

공정위는 제조·유통·건설업 분야 원사업자 1만 개와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은 수급사업자 9만 개를 대상으로 전년 하도급 거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기업들은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6%),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0.6%), 원사업자가 수

### 활용 중기 100곳 중 7곳뿐... 인상 요청했지만 거절되기도 “납품단가 연동제 등으로 원자재값 연동 관행 정착시킬 것”

용할 것 같지 않아서(7.6%), 거래량 축소, 거래 단절 등이 우려돼서(6.6%) 등을 꼽았다. 43.5%는 공급원가가 그대로이거나 하락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인상이 0%인 수급사업자는 6.9%였다. 원사업자가 인상 요청을 전액 수용했다는 응답은 29.9%였고, 수용률이 75% 이상 100% 미만이라는 응답은 31.3%, 50~75%는 15.1%, 25~50%는 8.1%, 25% 미만은 8.5%로 조사됐다.

수급사업자 10곳 중 4곳(40.9%)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52.8% → 59.1%)와 활용도(4.0% → 6.8%)가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년보다 하도급 거래 단가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0.3%였다. 나머지는 단가가 그대로(48.3%)이거나 오히려 낮아졌다(11.5%)고 응답했다.

하도급 공정거래 여건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5.5%포인트 높아진 62.7%, 악화했다는 응답은 2.0%포인트 높아진 3.1%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대학 입학대까지 후원합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왼쪽)은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대표적 장학사업인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7호·8호를 선정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등을 통해 후원금 각 300만원과 선물을 전했다. 광주은행은 이들 청소년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예술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을 후원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제공>



호주산 천연 양모로 따뜻하게. 1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9층 행사장에서 이달 말까지 40~50% 할인하는 호주 천연 양모 담요, 베개,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천연 양모는 공기가 잘 통하고 방수가 잘돼 겨울철 집안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인기 상품으로 꼽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전남도 ‘무역의 날’ 수출 우량기업 격려

### 세아엠엔에스 4억 달러 등 수출탑 30개사·유공자 15명 축하

전남도가 13일 호텔 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제59회 무역의 날’ 수출탑 및 유공 포상자 전수식’을 열어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격려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관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춘상 광주전남기업협회장, 이현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관재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성희 전남도중소기업입자리경제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지역 수출탑 수상기업은 총 30개사로 ㈜세아엠엔에스가 4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것을 비롯

해 ㈜신안천사시가 1억 달러, 부천공업㈜, ㈜대창식품이 5000만 달러, ㈜제일이 3000만 달러, ㈜정광신소재가 2000만 달러, ㈜가리미, ㈜에이티앤지가 1000만 달러 수출탑 영예를 안았다.

또 ㈜비알에스글로벌, ㈜제오빌더, ㈜티젠 농업회사법인, 라인호㈜, ㈜엘티아이가 700만 달러, ㈜매그나텍, ㈜솔루션, 어업회사법인 ㈜엘림푸드가 500만 달러, 장지도어업그룹(국영), 어업회사법인 (유)송원수산이 300만 달러, ㈜이맥솔루션, 어업회사법인 경영수산(유), 북하특수사업단(유), ㈜정미래, ㈜월드코스텍, ㈜에프앤디, (유)성문, 한들수산, 명품전복 영애조합법인, 팬코스(유), 어업

회사법인 ㈜해초, 농업회사법인 ㈜천농프레시가 1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어진 수출 유공 포상에선 총 15명이 수상했다. 철강산업협회는 방관혁 ㈜삼진지에프 대표, 산업포장은 김기섭 현대삼호중공업(유) 책임매니저, 국무총리 표창은 신경우 현대삼호중공업(유)반장과 최규석 대한조선(유)차장이 수상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정병준 북하특수사업단(유)대표, 강경필 부천공업(유)대표, 김현성(유)정미래 대표, 정현택 ㈜대창식품 대표, 김경남(유)에이티앤지 대표, 이철호 ㈜솔루션(유)부장, 문수경(유)유원산업기술 대표, 김영수 한국콘텐트진흥원 센터장, 장현순 농업회사법인 ㈜네시피에프앤비 대표, 장선성유 크리에이티브(유) 대표 등 10명이 수상했고 대운프라스틱(유)임동욱 대표는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공공배달앱 ‘떡깨비’ 이용하고 캐스퍼 받자

### 전남신보, 2회 이상 결제 대상 추천...4000만원 상당 경품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전남 공공배달앱 ‘떡깨비’ 연말 연시 이벤트를 12월 14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배달앱 식 수요가 급증하는 연말 연시 설 명절을 맞아 신규회원 가입자 확대 및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마련했다.

연말 연시 이벤트는 총 4만7000명을 대상으로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을 위한 할인쿠폰과 4000만원 상당의 경품 제공으로 풍성하게 구성했다.

신규회원 선착순 8000명에게 1만원 쿠폰을, 기존 회원에게는 매일 3천원의 쿠폰을 예산 소진

시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경품 이벤트는 14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떡깨비’ 이용 2회 이상 주문 결제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1등 캐스퍼 자동차(1명), 2등 노트북(2명), 3등 떡깨비 1만 포인트(2,020명)를 제공한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증액된 사업비를 활용해 전남 공공배달앱 홍보와 할인쿠폰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배달앱 기능도 음식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모바일 정보 기능을 추가 도입,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성신(가운데) 본부장과 김호상(오른쪽) 조합장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 농협 광주본부·광주축협 AI 방역 상황 점검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축협농협은 13일 광주시 광산구 가금농장과 거점 소독시설을 찾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고성신 광주지역본부장과 김호상 광주축협 조합장이 참여했다.

광주축협 공동방제단과 관계자들은 광산구 연산동 가금농장과 삼도동 거점 소독시설을 찾아

다. 공동방제단은 인건 차량을 방역하고 농장 주변 생석회 띠를 만들었다.

고 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전남에서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며 “방역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